고흥군, '나에서 우리로' 청소년 생명 존중 교육 마무리

관내 중고등학생 321명 참여…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문화 조성



중학교 생명존중 교육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내 4개 중고등학교 학생 3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명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나에서 우리로' 관심을 넓혀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고민과 감정을 나누며, 자신에게는 사소하게 느껴지는 고민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필요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일상에서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혔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서 나아가 친구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지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토마토바이러스 피해 예방 총력

보성군은 13일 최근 타 지자체에서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토마토 재배 농가에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대응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감염된 토마토는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얼룩무늬와 주름이 생길 수 있다. 열매에는 갈색 반점이나 주름이 생기고 색이 고르게 들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며, 수확량이 30~70%까지 줄어들기도 한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식물에 닿은 손이나 장갑, 작업 도구 등을 통해 쉽게 퍼진다. 감염된 작물을 치료할 약제가 없어 재배 시설의 위생 관리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멈추고 증상이 나타난 곳을 표시해야 한다. 의심되는 식물과 주변에서 사용한 자재는 옮기지 말고,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물팀(☎061-850-5740~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절임배추 앞세워 소비촉진 나선다

해남군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전국민 배추 소비와 김장 문화 확산에 나선다. 군은 오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2026 국민건강 김장페스타(with해남)'를 개최하고, 해남절임배추를 비롯한 해남 대표 농특산물 홍보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국내최대 오픈마켓사이트인 지마켓과 온·오프라인 동시 특판전으로 진행한다. 우선 대전광역시 우리들공원에서는 지마켓에서 운영하는 김치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김치담그기 체험을 비롯해 시식 체험이 진행되며, 유명셰프가 직접 김치를 담그고 소개하는 김장 라이브 방송도 운영한다. 참여형 이벤트와 경품 증정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마련해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남 농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마켓은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명품 김치 특판전을 운영한다. /박종옥 기자

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감사 행사

진도군이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도에 마음을 전해 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진도愛 재기부하면 혜택이 두 배! 세 배!'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이며 해당 기간 중 진도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존 혜택과 함께 진도군에 기부한 누적 횟수에 따라 최대 3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된다.

진도군에 처음 기부하면 1만 원, 두 번째 기부면 2만 원, 세 번 이상 기부한 경우 3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또한,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기존 혜택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준비한다"

장흥군은 13일 장흥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강위원 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를 초청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장흥의 선택과 전환'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공직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시범사업 공모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속에서 장흥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강위원 전 경제부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지원 정책을 넘어 지역소멸을 막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를 맞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해경, 짙은 안개에 방향 잃은 어선 2척 잇따라 구조

경비함정·연안구조정 급파해 안전확보.. 해상 안개 발생 시 주의 당부



방향상실 어선 안전관리 중인 완도해경의 모습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13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어선 2척이 잇따라 방향을 잃자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동원해 신속한 안전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2분경 전남광주 완도군 소안도 남방 해상에서 A호(2.95톤, 승선원 1명)가 방향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주변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A호의 위치와 승선원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청산도 도청항에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4분경에도 소정원도 서방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B호(1.14톤, 승선원 1명)가 안개로 방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도해경은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B호가 넙도 내리항으로 무사히 입항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송규하 완도해경 경비구조과장은 "해상에서 안개가 발생하면 주변 선박이나 장애물을 발견하기 어려워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운항 중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완도해경은 앞으로도 기상 악화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비해 경비함정과 구조정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어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